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부활주일]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65장 다같이

1.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2.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3.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후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 도 가족 중**성경봉독 마가복음 16장 1-8절 인도자****설 교 “누가 돌을 굴러 주리오” 인도자****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2.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3.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누가 돌을 굴려 주리요

마가복음 16:1-8

마가의 ‘부활에 대한 기사’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다(8개 절). 빈 무덤과 천사의 전갈 그리고 여인들의 침묵으로 끝난다. 안식 후 첫날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른 새벽 무덤을 향해 간다. 그들은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3절)라고 질문한다. 무덤은 거대한 돌로 막히고, 초와 흙으로 인봉되었고, 로마 군인들이 수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확신도 없었고, 다만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을 표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누가 돌을 굴려 주리요?”라는 질문은 날마다 세상에서 거대한 돌들과 씨름하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다. ▶무의미의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알베르 카뮈의 『시지프의 신화』에 보면 시지프가 바위를 굴러 산꼭대기에 올려다 놓는 벌을 신에게 받는다. 정상에 올려다 놓으면 다시 굴러 내려서 영원히 그 일을 반복해야 했다. 의심과 불신의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베드로는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도 돌밭에 뿌린 씨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환난과 위협 때문에 번번이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못하고 번번이 실수했다. 이처럼 수많은 돌들은 오늘도 소리 지르고 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소리친다. 출구가 없다고 소리친다. 누가 빛을 차단하고 우리를 흑암 가운데 가두는 이 돌을 옮겨줄 것인가? 이 죽음의 문화의 돌을 굴려 줄 것인가? 부정의와 착취와 인권유린과 독재 세력의 돌을 굴려 줄 것인가? 너와 나를 가로막는 미움의 돌을 누가 옮길 것인가? 이 돌은 우리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것이다. 이 돌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다. 이 돌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장애물이다. ▶오직 부활의 주님만이 이 돌들을 옮길 수 있다. 여인들은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무덤에서 돌이 굴러져 있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에게는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여인들에게는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라고 굴려 주신 것이다. 부활의 날에 돌이 굴러간다.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은 여인들보다 앞서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했고 그 일의 증인이 되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돌이 굴러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 돌은 크고 무겁고 봉하여 있었고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떠한 큰 바윗덩어리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다. 베드로에게서는 비겁의 돌이 굴러갔다. 어린 여자 중 앞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할 정도로 담대해졌다. 이처럼 비겁의 돌, 실의의 돌, 불신앙의 돌, 완악의 돌, 약함의 돌, 의심의 돌, 죄책과 죽음의 돌이 모두 굴러갔다.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어려움이 굴러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망의 무거운 돌을 옮기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다른 돌들도 능히 옮기실 수 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위대한 성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나 업적만큼 큰 무덤을 남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도는 빈 무덤을 남기셨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만날 수 없다. 당시 서민들의 생활 현장인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축제요, 감사의 예배이며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주일에 모이는 것이다. 주일에 바위가 굴러갔다. 사망의 쏘는 것이 사라졌다. 어두운 무덤은 열렸다. 예수님은 역사책 속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대한 돌을 굴러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으로 오늘의 거치는 바윗돌들을 굴리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무한한 능력의 생활이다.